

# 협회소식



## ◀ 병원산업 육성—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 김철수 회장, 영동세브란스 의정포럼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큰 병원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경제적 지원 육성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1월 13일 영동세브란스병원 주최 의정포럼에서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현황과 대책' 특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병원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연에서 김 회장은 "OECD 국가는 이미 보건의료산업을 국가경제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 인력·예대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최적에 입지조건임을 십이분 활용하여 병원산업 육성 진흥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 병원산업 세계화 기반구축' 등 주제 제22차 병원관리종합 학술대회

'병원관련산업전시' 'QI 포스터 전시' 병행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1월 23, 24일 이틀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1300여 병원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병원산업 세계화 기반 구축', '병원경영 최적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보기술의 발달과 융합기술의 전망(포항공대 박찬모 총장)' 특강과 김현주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사무관의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초청강연과 병원경영자들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연수강좌도 함께 이루어졌다.



## ◀ 수가인상 마지노선 5.2%, 유형별 계약 수용불가 전국병원장 긴급 성명 발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1월 28일 전국회원병원장 명의의 '2007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소한의 수준인 5.2%이상 인상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은 현행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는 원가대비 81%에 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으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마저도 감안하지 않은 수가인상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문제에 대해선 "요양기관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원칙아래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소식



## ◀ 수가 2.3% 인상 납득못해

### 물가·임금 상승률 절반도 못미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3% 인상키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병원계는 “임금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책임위원회가 12월 1일 오전 2007년도 수가를 2.3% 인상조정(환산지수 62.1원)토록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인건비증가율을 반영해 최소 5.2%인상을 강력히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가인상률을 결정한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 2007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4319명 응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서 17일 일제히 실시

우리나라 전공의 전형 시행이래 다섯번째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전체에 대하여 필기시험문제를 일괄출제해 중앙공동관리 방식을 적용한 2007년도 전기 레지던트 전공의 전형 필기시험이 12월 17일 서울 이대부속금란고등학교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모두 3874명을 모집하는 2007 레지던트 전형 필기시험에 4319명이 응시해 1,143대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을 감안한 중앙시험본부의 긴급결정으로 예정시간 보다 20분 늦은 10시 20분부터 시험을 시작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개과와 정신과(선택) 등 5개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렀다.



## ◀ 백혈병진료비 환급 관련 의료계 공동 TF 구성

백혈병 환자진료비 환급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12월 19일 아침 팔레스호텔에서 김철수 회장을 비롯 장동익 의협회장, 김부성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성상철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주임),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백혈병 진료비 환수사태가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 전선을 펴기로 했다.

의료계 공동TF는 병·의협 법제 및 보험 임원과 사립대·국립대병원,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총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의료현실을 반영한 진료비심사기준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백혈병진료비 사태로 도마위에 오른 임의비급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잘못된 심사기준 등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 등을 심도있게 다루게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